

##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Multicultural Society

###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실천의 영향연구

<sup>1</sup> Dok-Dong Jung(정독동), <sup>2</sup> Myoung-Kil Youn(윤명길)

<sup>1</sup>, First Author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ung-Won University, Korea,  
E-mail: sjbae@kisti.re.kr

<sup>2</sup>,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Health Industry, Eulji University, Korea. Tel: +82-31-740-7292, E-mail: retail21@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26, 2017. Revised: December 10, 2017. Accepted: December 15, 2017.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of social workers' needs for cultural competence and understanding its meaning. And furthermore, this study describes Korean cultural competence and how it is viewed in Korean reality where social workers a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is research idea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data and discussed issues.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Korean social welfare site involving multicultural, the role of advocacy is considered essential to Korea. Also, it is necessary and unavoidable part of the perspective of a social justice. Currently,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society is rapidly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means that we need to promote the ongo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to improve and enhance multicultural education system. But, the real effect of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reality of the situation represent just other culture introduction, thus, most of the ongo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systems are insufficient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go before becoming a full-fledged multicultural society. A multicultural society can bring diversity and rich life. Therefore, social workers with deep Korean multicultural competence should be increased in Korean changing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Social Workers, 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Competence, Multicultural Society.

#### 1. 서론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사회를 이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2006년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외국인 주민 수는 54만 명 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741,919명(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 주민현황)으로 증가하여 10년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14.4%의 증가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율 1.6%의 25배에 달하며,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대비하여 3.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1990년대 결혼이주 여성의 대거 유입

으로 시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언론, 시민사회 등의 관심이 증대되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 이주민들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후 2016년 현재, 전국에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누리 콜센터, 결혼 이민자 인권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 전달체계가 다양화되었으며 지자체의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기관관리자, 상담사, 방문지도사 등 이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 다문화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이 존재한다.

일반 사회복지 실무자와 달리 다문화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직무수행시 다른 문화, 언어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다문화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자로서 다양한 직무역량이 요구된다. 즉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다문화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조력자, 옹호자, 중개자, 연구자, 행동가, 조사자, 통역자, 등 다양한 역할수행을 하여야 한다.

급증하는 다문화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처하는 실무자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문화 가족들은 문화적인 충돌이 가족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문제 그 자체로 부각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에 기초해서 형성된 한문화 가족과 구별되는 개입전략을 요하게 된다. 특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이 이질적이므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문화적 배경이 원조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며, 클라이언트와의 문화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이 효과적 개입의 우선요인으로 작용한다(Choi, 2013).

이 논문은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이 왜 필요한지, 둘째, 다문화 역량이란 무엇이며 셋째,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의 현실을 살펴보고 넷째, 그 동안 논의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결론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국내 다문화 사회복지

### 2.1. 국내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문화적 역량은 왜 필요한가?

1990년 국내체류 외국인이 약 5만 명 수준에서 2015년말 기준 1,899,519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법무부 기준). 다문화 자녀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5년 207,693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구성한 결혼 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도 다양한 국적을 보여 다문화가족내의 문화적 배경 또한 비동질적이다. 또한 2006년 10,958명이던 남성결혼이민자수가 2012년에는 20,957명으로 약 91%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역량이 요구되는 다문화 실천 대상자들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7년 현재 전국에는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과 체류외국인에게 한국적응지원, 취업지원, 가족방문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 언어 발달지원, 통번역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는 경제적문제, 언어소통의 문제, 관계갈등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Kim, Oh, & Ahn, 2012; Park, 2013). 다문화가족의 내적 다양성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문제의 복합성 등은 사회복지실천의 전통적 방법론에 변화를 촉구하며 도전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천가가 서비스개입과정에서 다문화 클라이언트와의 언어, 문화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다문화 이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포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기술습득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자원연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직무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즉 한국의 급격한 다문화로의 사회변화로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으며, 다문화 구성원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가의 다문화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는 정치, 문화, 사회적 환경에 적극적으로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면서 세대, 성, 문화,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다문화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편견 없는 열린 마음, 포용성, 간 문화적 능력 등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들과 일하기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의 직무역량이 급속도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2.2. 다문화 역량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문화적 배경이 동질적이었던 전통적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문화적 역량은 전문성으로 강조되지 않았으나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역량 증진은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매우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다문화의 양적, 질적 확대가 문화적 역량에 대한 직접적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서구사회는 사회복지 분야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2011; Hyun, 2011; Park, 2017). 그 중 Sue의 삼차원 모델은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에 대한 다양한 주장 중에 가장 폭넓게 지지되어 왔다. Sue(2006)는 문화적 역량이란 조직적,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론, 실천, 정책 및 조직구조를 개발하는 행위 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Park, 2017). 문화적 역량은 가치, 행동, 태도, 기술, 이해 등 다양한 차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 실천가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조직, 정책 등 다양한 체계에 요구되는 능력이다(Choi, 2013).

Sue(2006)는 다문화역량의 구성요인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화 인식**으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와 신념, 태도가 다문화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신의 문화, 가치, 편견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 성찰하며 클라이언트 문화에서의 문제해결 전략, 생활방식, 신념 및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Choi, 2013).

둘째, **다문화 지식**으로 클라이언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지적 기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관습, 사회, 역사, 예술, 문화, 전통, 종교, 가족체계, 양육방식, 생활양식, 정치적 배경 등을 알수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에 존재하는 억압, 차별, 정책 등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등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셋째, **다문화 기술**로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위한 적절한 개입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사정기술 등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을 언급하였다. Park(2017)는 다문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① 다문화 구성원의 문제와 관련된 문화적 정보를 수집하고 문화적 사정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다문

화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문화의 강점을 찾아 평가할 수 있는 문화적 사정기술을 갖춰야 한다. ② 다문화 구성원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되는데 다문화 구성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집단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은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복지사는 이중언어를 습득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③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제도적 차별과 억압을 인지하고 바로 잡기 위한 개입전략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다문화 구성원을 위해 문화적 편견과 인종차별, 불평등, 사회적 억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적 변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Choi(2010)은 다문화역량에 다문화 태도를 첨가하였다. Choi(2010)에 따르면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다문화태도를 갖추기 위해 다문화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적으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에게 비심판적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적 가치의 인정, 상호 협력할 때 다문화 태도를 습득 할 수 있다(Park, 2017).

다문화 역량이 부족한 사회복지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욕구와 추측으로 오류를 범하기 쉬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Sue, 2006) 이처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다문화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 3. 국내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과 현실

다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정책의 한 방식을 다문화정책 이라고 할 때 다문화 정책은 크게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차별주의 등으로 나누며 국가의 역사와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Choi, 2013).

흔히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이라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에서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비판 받고 있는데 동화주의적 지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일선에서 이들 정책을 현실화하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다문화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가가 한국문화를 클라이언트의 출신문화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문화 중심주의의 포박되어 클라이언트로부터 출신문화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국문화로의 정체성 이전을 장려하는 콜로니얼리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한다(Choi, 2013).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실천가의 양성은 우선 사회복지 제도적 교육에 의존하게 되는데 빠른 속도로 다문화화 되고 있는 실천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교육은 매우 제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 25%의 대학만이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에 다문화 관련 교과과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선택으로 두고 있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역량을 필수역량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못한다고 한다(Choi, 2013)

그것도 이러한 교과과정이 개설되기 시작한 시점이 최근임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다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가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낮는데 이는 현장에서 문화적 역량이 있는 실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은 학력이 아닌 다문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시간, 다문화관련 기관에 재직할 기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Choi, 2012) 결과는 사회복지교육이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다문화관련 전문교육이 주요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주로 다문화적 현장경험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또

한 사회복지 보수교육안에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2013년 4개로 전체 프로그램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Choi, 2013).

Ji(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다문화연수경험이나 다문화봉사경험, 다문화 간접경험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높아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고 하였으며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다문화 수용성은 해외근무 거주 경험, 다문화 연수경험, 다문화봉사경험, 외국어 능력요인이 유의미하며 직무수행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접촉이나 경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im(2014)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개인적 가치관-정치적 이념성향, 국민정체성, 유교적가치관, 주관적 계층의식, 세계화에 대한 인식 및 자민족 중심주의 등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②외국인 및 외국문화와의 접촉경험-외국방문 경험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교류가 다문화 지향성을 높이며 대학생의 외국인 접촉경험이 많을 수록 개방적태도를 갖게 하고 중.고생의 경우에도 외국인과의 교류가 증가할수록 다문화 지향태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③ 다문화교육의 경험-다문화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관계형성능력,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적 공감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사회인구학적 변수, 즉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소득 등이 작용한다고 한다. 이 중 다문화적 경험이 문화간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문화간 접촉을 경험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대등하거나 서로 대등하다는 믿음이 전제 되어야 하며 문화간 접촉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간의 협동과 상호의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들 사이의 접촉이 비공식적이고 내밀화 될수록 문화적 감수성이 더 많이 향상되며 이상의 조건들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전문직의 1차적 임무가 인간의 복리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돕는 것이며 특히 취약하거나 억압받거나 빈곤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욕구와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서비스, 사회정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 성실, 능력이라는 핵심가치들을 근거로 두고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들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다문화역량 강화의 초석이 갖춰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 4. 앞으로의 과제

Kim(2014)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개입으로 무엇보다 사회복지 가치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한다. 사회복지학 교육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다문화인구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전반에 걸친 인간관계의 중요성,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서비스 실천의 중요성,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회정의 실현 등에 다문화 지향성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한다. 또한 외국방문기회의 제공, 외국인과의 접촉경험의 제고, 다문화 교과목 및 교육과정의 신설 및 강화 등이 모두 교육적 개입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Choi(2013)는 1) 사회복지공동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거시체계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사회가 효과적으로 반응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다문화 정책의 수립자, 모니터, 전달자로서 포지셔닝하고 다문화 정책대상의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거시체계에 적극 개입하기 2) 문화적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교과과정 개발의 필요성과 이들

교과목의 필수화 논의를 발전시켜야 하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닌 실천가 양성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대학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된 사회. 경제, 민족적 소수자를 사회복지 실천가로 양성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3) 다문화 실천가의 다문화 실천경험이 문화적 역량으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4)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인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5)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에 관한 보수교육 체계 강화를 들고 있다.

Kim(2013)은 다문화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과정 중 다문화 실습이나 체험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문화배경의 실천가 양성이 중요하므로 재학생인 이주여성과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의 실태파악과 지속적 유입노력, 졸업 후 다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관련 전공자나 실천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기관 내 훈련과 자문, 학회의 연수과정 등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문화적 유능성은 장기간의 정서적 훈련이 필요하며 강의위주교육보다는 실천가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질의응답, 사례연구, 역할극, 게임, 집단토의 같은 워크샵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문화관련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최근임을 감안하여 다문화 사회복지사, 현장전문가,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및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제공해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가들이 확보될 때까지 다문화 교육에 활용가능 하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시 다문화 관련 구체적 내용을 반영할 것과 사회복지 실천시 사정도구로서 문화도(culturagram)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 5. 결론

앞에서 연구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다문화 역량이란 무엇인지,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가의 문화적 역량의 현실은 어떠한 지, 마지막으로 그 동안 논의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다문화사회복지 실천현장 중심에 서있는 연구자로서는 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유익한 연구시간이 되었다. 덧붙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선 사회복지직의 기본가치와 사회복지 옹호의 개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옹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사회정의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현행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새로운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타문화 소개에 그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대다수의 다문화이해교육은 다문화역량을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기회를 빌어 급변하는 한국 다문화 사회에 꼭 필요한 다문화역량을 갖춘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하며 필자 또한 그 중의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

## References

- Choi, H. J. (2013). 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Working with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Challenge and Task.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13(2), 31-50.
- Hwang, S. H. (2014). *Study on the Effect Multicultural attitude and Social Work Efficacy on the Advocacy Activity Performance: Around Employees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aster dissertation, Seogang University.
- Ji, S. H.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f Multi-cultural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on Job Competen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Doctorial dissertation, Baesuk

University.

Kim, H. A.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Counsel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3), 1717-1737.

Kim, J. Y. (2014).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Work Values on Muticultural Acceptance among Social Work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Social Work Advocacy*. Doctori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Kim, W. (2013). Cultural Competence, Challenge and Task of Social Workers for Familie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2013(2), 51-57.

Lee, E. J. (2010).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Derald, W. S. Trans.). Seoul, Korea: Hakjisa.

Lee, S. S., Lee, J. B., Kim, J. Y., Kim, M. K., Kim, H. H., Jung, M. H., Jung, O. H., & Ahn, C. R. (2017). *Multicultural Social Welfare*. Paju, Korea: Yangseowon.

Park, H. H. (2017). *Requirement analysis for multicultural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Master dissertation, Kyungbuk National University.